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영향요인

Social Adjustment and Influential Factors in Children Living in Child Care Institutions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남 영 옥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Young Ok Na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assess influential social adjustment factors in children who live in child care institutions. To do thi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arried out on 326 children from 12 child care institu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living in child care institutions were deemed better based on higher self-esteem, more maintenance of contact with parents, more positive caring environment within institutions, higher support of fellow school children, and more pro-social charactes of school peers.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s on social adjustment was indicated to be highest in institutions with a caring environment. In conclusion, self-esteem, pro-social charactes of school peers, support of fellow school children, and contact with parents (in that order) were deemed most influential to social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아동양육시설(child care institutions),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아동(child)

I. 서론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집단적 생활과 통제된 환경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부적응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아동기의 특성상 발달과정상의 문제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성장과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단절됨으로써 불안정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형성과 인내심, 성취감, 사회적응력도 결여되기 쉽다(강경화, 2005;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또한 최근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등의 가족해체로 인한 시설입소가 증가되면서 아동은 시설생활 이전부터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입소 이후에도 대리양육자의 잦은 교체와 집단보호로 인해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시설아동들이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아동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적응상의 문제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Leathers, 2000).

양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며(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협동, 자기주장, 자아통제 등의 사회적 기술수준과 정서조망 능력이 더 낮고(권세은, 2002),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학교적응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성호, 2001). 이처럼 어린시절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타인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Mash & Wolfe, 1990), 성인지향적이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특별한 친구가 적고, 불안할 때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다(Hodegs & Tizard, 1989).

이처럼 양육시설 아동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들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이나 학교부적응 등을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시설보호라는 위험환경 자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부적응적 행동만을 강조함으로써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들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일경(1996)의 연구에서는 시설아동들이 일반아동

에 비해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아동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설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두드러지게 외부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순형, 이예승, 2002). 이처럼 시설아동들이 적응적이라는 보고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설아동들 중에서도 환경적 어려움을 이기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의 부적응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들의 발달적 특성에 초점을 둔 적응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의 시설퇴소 이후의 자립과 성공적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시설아동 및 청소년의 탄력성(이안영, 2006)이나 학교적응(권기남, 유안진, 민하영, 2002; 강경화, 2005; 성미영 외, 2001; 여은선, 2005; 이현옥, 2001)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연구(유안진 외, 2001)에서도 우울과 학교적응을 다루었을 뿐 사회적 적응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연구(박혜영, 2004)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인보다 위협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을 뿐 적응적 관점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설아동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적 적응력을 발달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Miller, 1998; 이상준, 2006 재인용). Asher(1983)는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아동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관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짓고 있다.

양육시설 아동과 이들의 적응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안진 외(2001)의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양육환경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정선옥(2002)은 시설아동의 개인 애착 특성과 원가족 관계경험, 시설에서의 관계경험 및 양육환경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강경화(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시설의 양육자 요인을 구분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여은선(2005)은 개인적 특성과 시설환경, 시설

의 학교환경으로 구분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시설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적응을 대체로 개인적 특성과 시설환경 그리고 학교환경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시설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특성, 시설환경, 학교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기행동 양식을 결정지어 주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깊다(이귀자, 배정우, 김미정, 2005).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사회관계망의 밀도가 높고, 돌봄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와 역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bes, Kaufman, & Racusin, 2001). 시설아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강경화, 2005; 여은선, 2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적 신념은 보호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며(Feinstein, 1997), 사람들에게 자신과 타인과의 연계감과 삶에 더 큰 의미나 목적을 알도록 하는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환경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Shuler, Gelberg, & Brown, 1994). 또한 종교적 신념은 폭력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Perkins & Jones, 2004), 위험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ham, 2001).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종교적 신념은 양육 시설이라는 환경적 위협에 노출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보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시설환경에서 부모와의 연락은 우울과 같은 아동의 반응을 감소시키는 도구이며, 현실을 회피·왜곡하는데 집중했던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발달과업의 수행과 위탁부모나 다른 보호제공자와의 양육관계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도록 돕는다(Davis & Ellis-MacLeod, 1994). 위탁가정아동에 관한 연구(Cantos, Gries, & Slis, 1997)에 따르면, 친부모가 정기적으로 방문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덜 보임으로써 적응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의 양육환경은 아동에게 가정적 기능을 대항해 주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시설환경에 불만족한 아동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탄력성과 사회적응이 떨어진다(박혜영, 2004). 시설아동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시설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학교적응(유안진 외, 2001)과 심리사회적 적응(정선옥, 2002)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기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는다. 부모나 대리양육자로부터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또래 지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들은 학교나 기타 또래관계보다 시설또래와 더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이현옥, 2002), 또래에 착이 강할수록 위축,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것이다(정선옥, 2002). 이처럼 부모와의 연락과 시설의 보호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환경, 그리고 시설또래의 지지는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학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족과 생활하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학교친구는 아동의 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황수정, 2000). 빈곤환경에 처한 아동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지는 이들의 학교적응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ernandez, 1993). 그리고 교사의 관심과 지지, 격려와 기대 등은 위기와 역경에 처한 아동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Constantine & Benard, 2001; Greene, 1992). 시설아동은 학교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지지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문성호, 2001)와 학교적응(여은선, 2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친구와 교사의 지지는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과 학교의 규범과 기대에 잘 부응하는 친사회적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동들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적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Alva & Padilla, 1987). 친사회적인 아동은 친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학교의 또래친구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집중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적응도 높아진다(Hoglund & Leadbeater, 2004).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학교친구가 친사회적 성향을 보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진다는 보고(이상준, 2006)는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이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 종교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시설환경에서는 부모와의 연락 여부, 시설의 양육환경, 시설또래의 지지를, 그리고 학교환경에서는 학교친구의 지지, 학교교사의 지지,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가정이 아닌 집단적 생활공간인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또래들과 잘 생활할 수 있는가는 성장 이후 사회생활에서 성공

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 이들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설아동의 개인적 특성, 시설환경, 학교환경은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18개 아동양육시설 중 12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12개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생활교사에게 의뢰하였으며, 약 1-2주 후에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은 본 연구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하였다. 표집은 시설 내 성별과 학교급의 비율을 고려한 비비례층화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각 시설당 20-40부씩 37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48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 3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남학생 54.9%(179명), 여학생 45.1%(147명)로 총 326명이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24.2%(79명), 중학생 49.4%(161명), 고등학생 26.4%(86명)이었다. 부모와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아동들의 62.9%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개인적 특성

1) 종교적 신념 : Perkins와 Jones(2004)의 종교적 신념도구와 Levin, Yaylor와 Chatters(1995)의 다차원적 종교성 척도 그리고 Martin(2001)의 종교성/영성 측정도구(Dixon, 2002)를 바탕으로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영자(199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시설환경

1) 부모연락 여부 : 양육시설 내 아동들이 원가족의 생존 부모와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지를 “연락 없음”과 “연락함”의 이분화로 측정하였다.

2) 시설의 양육환경 : 김형태(1989)의 양육환경 도구를 정선욱(2002)이 재구성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모두 타당하게 나타났으며(χ^2 2.420, RMR .005, GFI .996, NFI .995, TLI .998, CFI .999), 하위요인인 성취($\beta = .606$)와 공유활동($\beta = .939$), 개방($\beta = .535$), 자율성($\beta = .831$)의 측정변수들이 시설의 양육환경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는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하거나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며, 공유활동은 구성원들과 오락 등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을 말하고, 개방은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경향이며, 자율성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본 도구는 성취 5문항, 공유활동 5문항, 개방 3문항, 자율성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3) 시설포래의 지지 : Duban과 Ulman(1989)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와 박지원(1986)과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여은선(2005)이 시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내 포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1) 학교친구의 지지 및 교사지지 : Duban과 Ulman(1989)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와 박지원(1986)과 김명숙(1994)

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친구지지 .91, 교사지지 .80으로 나타났다.

2)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 : Perkins와 Jones(2004)의 또래집단 특성도구와 Sebanc(1999)의 친사회적 행동척도 그리고 Nelson(1999)의 친사회적 행동척도를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이상준(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Gresham과 Elliott(1990)의 청소년용 사회기술평가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Gresham과 Elliott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어 여러 연구자들(Miller, 1998; Lloyd, 2000; Graham, 2001; Loveland, 2001)에 의해 사회적 적응의 측정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며, 이상준(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모형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고, 협동성과 주장성, 공감의 측정변수들이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 협동성은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하며, 주장성은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의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공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하여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말한다. 본 도구는 협동성 9문항, 주장성 9문항, 공감 10문항,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아동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사회적 적응의 하위측정변수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특성은 종교적 신념(2.44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중간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교친구지지 3.08점, 시설또래지지 2.98점, 학교교사지지 2.85점, 자아존중감 2.77점, 시설의 양육환경 2.7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사회적 적응은 2.7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공감(2.87점), 협동성(2.79점), 주장성(2.4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는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의 양육환경과 시설또래의 지지간 관계가 .640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친구의 지지와 학교또래의 특성 .577, 시설또래의 지지와 학교친구의 지지 .55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의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50 이하로 나타났다. 시설의 양육환경과 시설또래의 지지간 관계가 .64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32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교적 신념	2.44	0.64	1.00	4.00	
자아존중감	2.77	0.54	1.30	4.00	
시설양육환경	2.75	0.56	1.19	4.00	
시설또래지지	2.98	0.68	1.00	4.00	
학교친구지지	3.08	0.68	1.00	4.00	
학교교사지지	2.85	0.66	1.00	4.00	
학교또래특성	3.16	0.42	1.90	4.00	
사회적 적응	2.70	0.37	1.37	3.60	
사회적 적응	협동성	2.79	0.47	1.33	3.89
	주장성	2.44	0.54	1.00	4.00
	공감	2.87	0.46	1.00	4.00

〈표 2〉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종교적 신념	1.00						
2. 자아존중감	.234***	1.00					
3. 시설양육환경	.441***	.373***	1.00				
4. 시설또래지지	.359***	.484***	.640***	1.00			
5. 학교친구지지	.169***	.443***	.404***	.554***	1.00		
6. 학교교사지지	.336***	.443***	.428***	.403***	.374***	1.00	
7. 학교또래특성	.261***	.428***	.356***	.444***	.577***	.344***	1.00***

*** $p < .001$.

르 성별과 학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으로 종교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시설환경으로 부모연락 여부와, 시설의 양육환경, 시설또래의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학교환경으로 학교친구의 지지와 학교교사의 지지,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표 3은 먼저 최종모형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적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잠재변수인 사회적 적응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은 협동성의 36.0%, 주장성의 23.0%, 공감의 5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χ^2 검정은 유의도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나, χ^2 검정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참고만 하는 추세이다. 즉, 표본수가 200사례 이상이면 대부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조현철, 2003, p. 88). RMR은 0.05보다 작은 .021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 .967, NFI .943, TLI .800, CFI .954로서 TLI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수한 수준인 0.90 이상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5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각 변수군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1은 표 5의 구조방정식 최종모형을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1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년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4단계의 최종모형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한 개인적 특성은 종교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종교적 신념은 3단계와 4단계에서는 통제적 유의도를 상실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은 3단계와 4단계에서도 여전히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아존중감은 시설환경과 학교환경에 관계없이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델에서 개인적 특성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6.4%였고, 2단계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59.6%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투입된 시설환경인 부모연락 여부와, 시설의 양육환경, 시설또래의 지지는 부모와의 연락여부와 시설의 양육환경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수록, 시설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이들의 사회적 적응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이러한 결과는 4단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연락여부와 시설의 양육환경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환경에 관계없이 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시설환경을 투입함에 따라 변화된 설명력은 14.3%로 유의미하였으며, 통제변수와 개인적 특성, 시설환경으로 설정된 3단계 모델은 사회적 적응에 대해 73.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 측정모형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CR	SMC
사회적 적응	협동성	.875	.600	9.995***	.360
	주장성	.795	.480	9.065***	.230
	공감	1.000	.710	-	.504

*** $p < .001$.

〈표 4〉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 모형적합도

χ^2	df	p	RMR	GFI	NFI	TLI	CFI
75.863	22	.000	.021	.967	.943	.800	.954

〈표 5〉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성별	.169	.150	3.517***	.116	.205	3.585***	.149	.230	4.363***	.086	.133	2.621***
학년	.025	.100	2.455***	.014	.112	1.960***	.023	.163	3.029***	.024	.170	3.403***
종교적 신념				.110	.250	4.087***	.031	.061	1.028***	.021	.041	.740***
자아존중감				.349	.658	8.900***	.283	.468	7.421***	.190	.314	5.076***
부모연락여부							.083	.124	2.349***	.079	.118	2.373***
시설양육환경							.222	.384	5.312***	.183	.315	4.669***
시설또래지지							.059	.123	1.693***	-.010	-.022	-.303***
학교친구지지										.097	.203	3.081***
학교교사지지										.050	.102	1.734***
학교또래특성										.209	.268	4.194***
SMC 변화량	.032			.564			.143			.110		
SMC	.032			.596			.739			.849		

주. 성별: 0 = 남학생, 1 = 여학생; 부모연락: 0 = 없음, 1 =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4단계에서 투입된 학교환경인 학교친구의 지지와 학교교사의 지지,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은 학교친구의 지지와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또래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시설아동들이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환경요인을 투입함에 따라 변화된 설명력은 11.0%로 유의미한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 개인적 특성, 시설환경, 학교환경으로 설정된 4단계 통합모델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적응을 8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개인적 특성, 시설환경, 학교환경이 모두 투입된 4단계 통합모델에서 나타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시설의 양육환경($\beta = .3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는 자아존중감($\beta = .314$)과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beta = .268$), 학교친구의 지지($\beta = .203$), 부모와의 연락여부($\beta = .118$) 순으로 사회적 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또래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학교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락을 유지할수록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 이들 영향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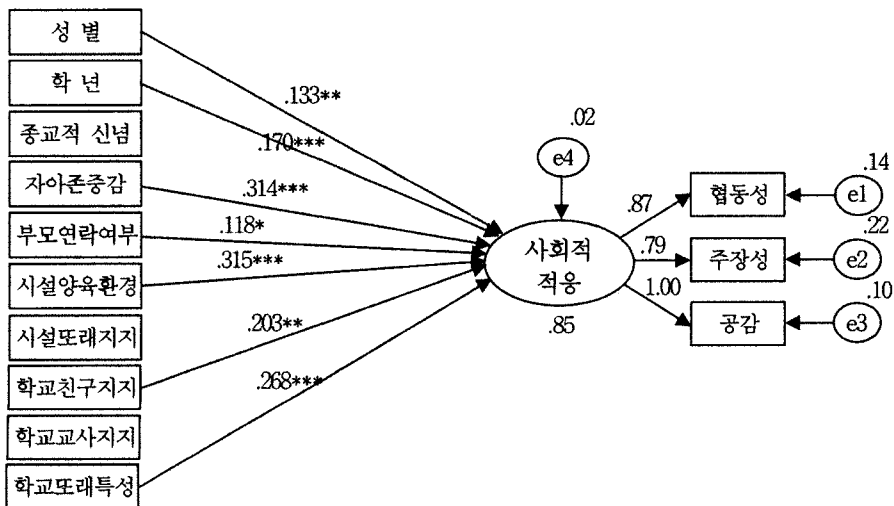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12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326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락을 유지할수록, 시설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또래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시설의 양육환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 학교친구의 지지, 부모와의 연락여부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인적 특성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설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강경화, 2005; 여은선, 2005)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은 이들 아동들의 특기와 장점 등을 활용한 활동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상담이나 지도보다는 집단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시설환경 중에서 시설의 양육환경과 부모와의 연락 여부가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설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이며(정선욱, 2002),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다(박혜영, 2004)는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양육환경을 아동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보호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다양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생활규칙 등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시설생활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 내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시설아동의 부모연락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유안진 외 2001; 정선욱, 2002)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규칙적인 연락이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들의 사회적 적응성 향상에는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시설아동들의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만남과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설입소로 인해 부모와 아동 사이에 생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망을 유지함으로써 퇴소 후에도 부모와의 재결합이나 교류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교환경 중 학교또래의 친사회적 특성과 학교친구의 지지가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또래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교의 또래친구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집중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며(Hoglund & Leadbeater, 2004),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학교친구가 친사회적 성향을 보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상준, 2006)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박현선, 1998)과 알코올중독가정 청소년(김재한, 2001)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친구의 지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학교는 아동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적훈련과 인격적 성장을 위한 안전한 장소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시설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적응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늘이나 집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 아동들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설생활이나 적응성 또는 환경적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대상을 아동뿐 아니라 이들의 원가족과 시설생활교사 및 학교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화(2005). 시설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및 양육자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기남, 유안진, 민하영(2002). 시설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재 통제 성향 및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0(5), 109-118.
권세은(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

- 서조망 능력과 자기역량 지각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한(2003). 알코올 중독자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호(2001).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영(200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여은선(2005).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적응유연성의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이귀자, 배정우, 김미정(2005). 사회기술훈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8(1)**, 73-89.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 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 이순형, 이해승(2002). 초·중·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차이. **아동학회지, 23(4)**, 119-136.
- 이안영(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옥(2001).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모델 SIMPLIS & AMOS**. 도서출판: 석정.
- 최일경(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va, S. A., & Padilla, A. M.(1987).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 students*. Los Angeles, CA:National Council of La Raza.
- Asher, S. R.(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Cantos, A. L., Gries, L. T., & Slis, V.(1997). Behavioral Correlates of Parental Visiting During Family Foster Care. *Child Welfare, 76(2)*, 309-329.
- Constantine, N., & Bernard, B.(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2)*, 122-140.
- Davis, I. P., & Ellis-MacLeod, E.(1994). Temporary Foster Care-Separating and Reunifying Families. In J. Blacher(ed.), *When There's No Place Like Home - Options for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Natural Families*. Paul H. Books Publishing.
- Feinstein, D.(1997). Personal mythology and psychotherapy: Myth-making in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508-521.
- Graham, B. L.(2001). Resilience among American Indian youth: First nations' youth resilienc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reene, A. L.(1992). Social context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s and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262-282.
-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degs, J., & Tizard, M.(1989).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77-97.
- Hoglund, B. J., & Leadbeater, B. J.(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 Leathers, S. J.(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orm Caregivers and Community E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Lloyd, B. T. (2000). Media influence on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competence: Does music video impact adolescent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oveland, T. E. (2001). The inclusive classroom context: Interaction with and influence on the social competence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Mash, J., & Wolfe, A.(1990). *Abnormal child Psychology*. N.Y.: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mpany.
- Miller, S. B.(1998). Facilitation of peer relations: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ctivities and its relation to their peer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erkins, D. F., & Jones, K. R.(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Shuler, P., Gelberg, L., & Brown, M.(1994). The effects of spiritual/religious practi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inner city homeless women. *Nurse Practitioner Forum*, 5, 106-113.
- Tebes, J. K., Kaufman J. A., & Racusin, G.(2001). Resilience and family psychosocial processes among children of parents with serious mental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115-136.

(2008년 2월 18일 접수, 2008년 3월 23일 채택)